

# ‘황금함대 구상’ 트럼프 “한화와 새 프리깃함 협력”

필리조선소 언급…신형 호위함 건조 구상 밝혀  
‘트럼프급’ 대형전함 재도입해 ‘황금함대’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신에 프리깃함(호위함)들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 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및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이 한화의 도움을 얻어 새로 도입하려는 프리깃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함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인 한화의 협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려던 프리깃함 사업이 지연되자 한국의 신속한 선박 건조 능력에 눈을 돌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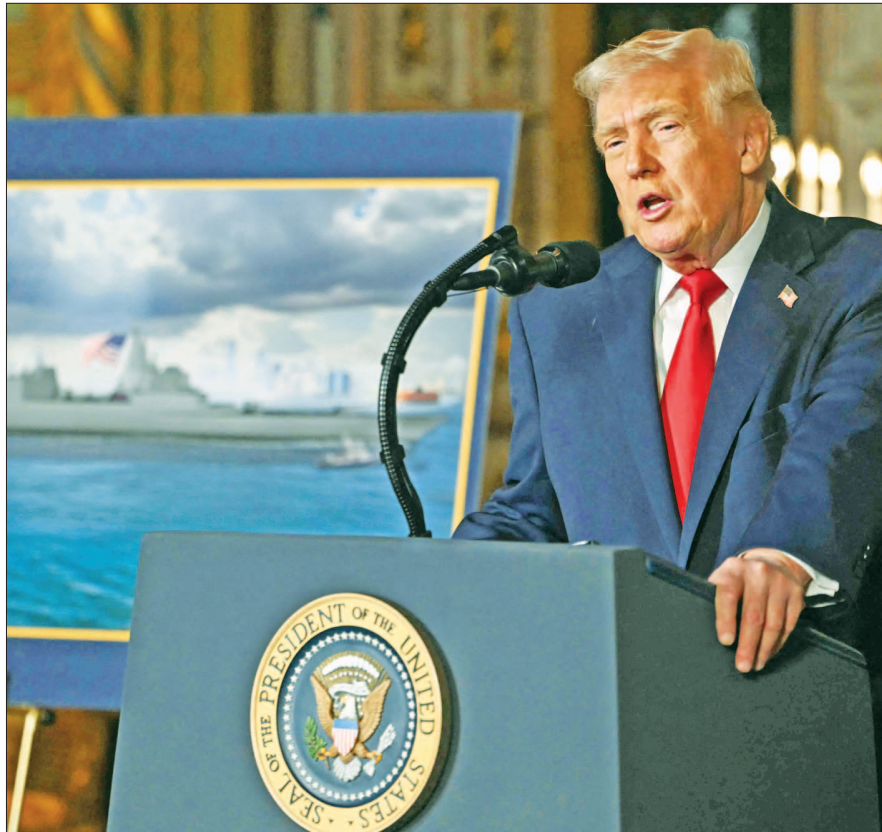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황금함대의 특징은 냉전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 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의 함포가 공격 반경 측면에서 항공모함 함재기와 구축함의 미사일에 밀려나면서 육중한 전함 건조는 1994년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알레 이버크급 구축함(배수량 약 9500t)이다.

황금함대는 3만~4만t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기함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그리고 핵무기(핵탄두를 실은 해상발사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함정들을 미국에서 건조한다.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나는 주요



‘황금함대’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

방산 업체들과 만나 생산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급’ 전함은 일단 2척을 먼저 건조하고, 궁극적으로는 20~2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첫 트럼프급 전함의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도전 또는 반항의 의미)’로 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개했다.

또 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15척 건조 중이거나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선박(군함)을 건조했다”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비극이며, 우리는 조선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이번 황금함대 구상은 날로 커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인 ‘골드 돔’처럼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해 명명했다고 한다.

연합

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 부과  
EU 부당 조치 반발 “중국측에 의견 전달할 것”

중국이 유럽연합(EU) 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해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충금 형태로 임시 상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

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이 복잡하며 2026년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AF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평가는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는 중국측의 예비 판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연합

뉴스

##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고객과의 신뢰 강화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현대하이텍 본사



현대하이텍 제2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제일사 · 주식회사 넥소오트

1991년에 설립된 현대하이텍은 Mobility Body Maker로 인화단결, 근면성실, 주인의식이라는 사훈과 품질향상, 기술혁신, 신용확대 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하이텍은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임직원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경영을 추구하여 보다 비전있고 가치있는 회사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주)현대하이텍 · (주)넥소오트 회장 김용구

**HD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오신동) · 제2공장/부연구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로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q24@daum.net · Homepage: www.hdhitec.co.kr